설교가 살인적으로 긴 이유

(사도행전 20:7~12)

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설교가 살인적으로 긴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설교가 살인적으로 긴 이유'
살인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견뎌내기에는 가혹할 정도로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살인적인 추위가 한반도를 덮쳤다, 살인적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밀려왔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 살인적인 폭염, 살인적인 물가'라는 식으로 사용됩니다.
살인적 물가로 대표적인 도시가 미국의 산호세입니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3,000~4,000달러 이상을 받아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써볼 돈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살인적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설교에 한 번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날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표현에서 이 날이 주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 때에 시작 된 설교는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본래 식사를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식사도 못 한 채로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해놓은 음식은 다 식었는데도 바울의 설교는 끝날 줄을 몰랐고, 또 사람이 많았기에 평소보다 많은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들이나 설교에 몰입되어 있는 장면을 쉽게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유두고 청년은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가에 앉아서 깜빡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

고 맙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적이 있었는데 고작 80cm정도를 자유 낙하했을 뿐인데 그 충격이 내장까지 전해오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무방비상태에서 사람이 3층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가 동행했을 것이기에 이 청년이 죽은 것도 직접 확인했으리라 봅니다. 사도 바울로써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청년이 죽게 되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왜 졸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청년의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이름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하층민의 삶이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식사를 하려고 왔는데 설교가 끝나지를 않으니 피곤함과 배고픔에 졸다가 사고가 일어났으리라 여겨집니다.

유두고가 죽은 뒤에 바울이 내려와서 엘리사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죽은 청년의 몸에 자신의 몸을 겹치면서 소란스러운 주변을 진정시키며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을 살려낸 후에야 떡을 먹고 다시 날이 새도록 설교를 하고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는 당사자에게도 살인적인 설교였으며 듣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죽는 사람이 나올 만큼 살인적인 설교였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표현을 살펴보면 누가가 느끼기에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왔던 누가가 매번 감동을 느끼진 않았을 것입니다. 불만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왜 그렇게 길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졌으리라 봅니다. 누가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고 살아나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길고 긴 설교 자체의 의미를 바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해석을 통해 대체 설교는 무엇이며 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인적으로 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그러한 설교를 마치고 곧바로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제가 신학과 학회장을 할 때에 부흥사경회 강사로 곽선희 목사님을 초빙하였습니다. 당시에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부흥사경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근처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의 일정을 다 마치신 목사님께서 밤 10시가 넘었는데 숙소로 안 가시고 새벽기도를 위해 다시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새벽기도를 마치시고 아침에 다시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깊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도 이 사건이 지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그토록 긴 설교를 해야만 했던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보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살인적으로 긴 설교를 했다는 것과 그러한 설교

를 마치고 곧바로 드로아를 떠났다는 것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도중에 유두고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누가는 이 설교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교가 무엇인지 두 가지 사실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생명이 돌아오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밤을 새면서까지 살인적인 긴 설교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두고 사건이 살인적으로 긴 설교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비유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설교의 어떤 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패나 성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진 성공과 실패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세상에서 충돌 없이 살아가기 위한 윤리와 처세 같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설교는 근본적으로 생명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두고처럼 죽은 자를 끌어안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물론 유두고의 사건에서는 육체의 목숨을 잃었다가 되찾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근본적인 생명에 대한 비유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곧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생의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을 예로 들어봅니다. 극의 후반부에서 로미오를 그리워하던 줄리엣은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 자살로 위장하기로 합니다. 자신들에게 협조해주었던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 가사상태에 빠지는 약을 받고 로미오에게는 계획의 전말을 알리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사고로 인해 전달될 수 없었고 오히려 로미오에게는 줄리엣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낙심한 로미오는 줄리엣이 안치 된 납골당을 찾아와 자살을 하고, 뒤늦게 깨어난 줄리엣은 자신의 곁에서 죽어있는 로미오를 발견하고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로미오의 검으로 자살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에게 살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로미오에게는 줄리엣이 생명이었고, 줄리엣에게는 로미오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삶에 대한 모든 의욕과 이유가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써의 연인을 잃자 더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의미입니다.
손흥민이나 메시나 호날두 같은 축구선수에게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발이 생명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손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면 축구선수로의 생명이 끝난 것이고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면 피아니스트로서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이든 축구선수의 발이든 피아니스트의 손이든 실은 진정한 생명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가짜 생명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가치를 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느껴보려는 시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가 참 생명을 가진 상태이고,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이고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의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해석이 됩니다. 설교는 죽은 자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살아야 될 이유로써 제시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밀결혼의 주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주례에 앞서 이들에게 해주어야만 했던 진정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또 로렌스 신부가 줄리엣에게 주어야 했던 것은 가사상태에 빠지는 비약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줄리엣은 로미오를 생명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그것이 가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을 헤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결혼시켜 주었으면 3년이 되지 못해 헤어지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 것입니다. 양 가문이 나서서 뜯어 말리려고 하니 더 뜨거워져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음은 사실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렌스 신부가 이것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생명을 돌아오게 하였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설교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줄리엣에게 로미오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설교의 목적입니다.

손흥민이나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에게도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해져야 될 설교는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더 유명해질 수 있으리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를 삶의 이유로 삼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축구가 생명인 상태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이신 상태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사업하는 장로님에게 상담을 해주셔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도 설교이기 때문에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은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고 흑자 보는 것만을 삶의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 삼은 장로님에게 그것이 가짜 생명임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는 설교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로렌스 신부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줄리엣에게 설교를 했고 줄리엣이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로미오에 대한 사랑은 다 식어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로미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나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에게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으로 제시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골을 넣어야만 기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기하기 전에 이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축구를 생명으로 여겨서 선수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통해 축구도 하게 됩니다.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생명이었기에 기쁘게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설교를 통해 생명을 바꾸어주면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부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에스겔서 9장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로미오의 마음에서는 줄리엣이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줄리엣의 마음에서는 로미오가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음에는 골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두 가짜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가짜 생명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생명을 되돌려주었듯이,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가짜 생명을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바꾸어주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살인적으로 긴 설교를 한 이유입니다.
설교는 말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설교는 마치 드라마 페인이라고 하는 비유에 가깝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감정이입이 극도로 심해지게 되면 현실에서의 삶이 가상세계처럼 느껴져서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드라마 세계를 실제처럼 체험하는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면 삶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전혀 다른 나라에 살게 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셔서 바뀌게 된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페인은 삶보다 드

라마에 현실감을 느껴서 몰입하게 되는 것처럼, 설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현실감을 느껴서 몰입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당장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야 하는 사도 바울이 살인적인 긴 설교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드로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애틋하게 여겨서 설교를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를 안내하고 체험하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 창가에 까지 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고를 15초의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설교도 20분 30분 동안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이탈리아에 관광을 가되 20분 30분 만에 되돌아오라고 한다면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살인적으로 길어진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느꼈던 세상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가문간의 싸움으로 자신들의 사랑이 괴로움을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면 두 가문의 갈등과 핍박은 여전할지라도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로미오가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변하여 이미 만족한 상태에서 로미오를 만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에 살던 세상과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임을 안내하는 역할을 설교자가 맡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몰아보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편씩 봐서는 드라마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가 다 끝난 뒤에 주말이나 휴가 때에 시간을 내서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교포들에게 대장금과 허준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데 한 50편쯤 되는 장편입니다. 비디오를 빌려서 쌓아놓고 한 번에 시청한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을 벗어나 대장금과 허준이 살던 조선시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설교의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듣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호흡하게 하려고 바울은 그토록 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드로아였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교회를 보면서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체험하게 하고자 끼니도 잊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살인적인 설교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의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흠뻑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는 폐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에 대한 폐인으로 만들기에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흠뻑 젖을 때에 오히려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체적 활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 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렌스 신부가 줄리엣의 생명을 로미오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 생명이 바뀐다는 것은 곧 줄리엣이 로미오를 전부로 여기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보다 드라마에서 현실감을 느끼는 드라마 폐인처럼 하나님 나라에 빠짐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서는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돈이 생명이고 건강이 생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폐인이 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게 된 자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고 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체험시키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본문에서 설교의 내용은 언급되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4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연관된 진리들을 설교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진리에 근거하여 이 세상 삶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항상 기뻐하라”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줄리엣의 마음에 로미오가 있을 때에는 기쁨과 만족도 있었겠지만 근심걱정과 괴로움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사야 25장 8절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라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으면 이 세상에 대해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줄리엣이 로미오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고 로미오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로미오를 관계하며 진정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확장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가 사실은 쓸모없고 전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의 베드로의 체험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말의 여지도 없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로 드로아 성도들을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 바라는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출세나 형통도 아닙

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좋아하고 소원합니다. 성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실패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조차 기쁨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고 나면 몸이 아프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더 우선적인 현실로써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현실로써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건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깨달음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입니다.

내게 불치병이 생기는 동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변함없이 작동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불치병도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으로 인해 불치병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합당한 일이기에 우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랬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문제가 내게 찾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 된 믿음을 조장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해야하는 일은 이 사람을 끌어안고 사업이라는 가짜 생명을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오히려 이러한 가짜 생명을 확고히 붙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합니다. "사업을 애지중지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사업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오류하심을 통해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설교가 아닙니다.

사업을 생명으로 여기는 상태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처럼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설교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자들을 끌어안고 가짜 생명을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는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몸에 불치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체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사십일 금식기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부흥회에서 소

리치며 기도하며 믿는다고 천만 번씩 외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불치병도 잘못된 일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치병을 계기로 삼아 가짜 생명을 참 생명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불치병도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시켜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는 못 만날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드라마 페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페인이 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사도 잊고 잠도 잊고 아침이 되어 떠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살인적 긴 설교를 듣던 고달픈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진정한 설교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설교는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켜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생명으로 알고 사는 유두고와 같이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 참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또한 이렇게 참 생명으로 바꾼 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러한 설교라면 길수록 좋을 것입니다.
설교는 결코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렌스 신부는 줄리엣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약을 제시했지만 이것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세상의 가치를 생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죽은 자에게 유일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가게끔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의 죄 사함은 결코 마지막 종착점이 아닙니다. 의인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 세상을 생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는 것은 죄 사함의 의미를 모르는 위험한 설교입니다. 십자가 설교에는 반드시 부활과 승천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부활과 승천이 떨어진 십자가는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이 끝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죄 사함 받은 깨끗한 나를 생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완성을 꿈꾸는 신앙의 나르시즘에 빠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죄 없는 나, 구원받기에 족한 나, 의로운 나를 꿈꾸는 것입니다.
칭의나 죄 사함은 목적이 아닌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로 가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종착역으로 여기고 다시 세상을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와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세상 것이라면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설교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

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렌스 신부의 비약은 로미오를 생명으로 삼은 줄리엣과 같은 신앙상태를 묵인하고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설교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설교자는 물론이고 교인을 더욱 지옥의 자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지 않는 설교는 모두 '화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있게 됩니다. 설교는 생명을 바꾸기 위한 것이고,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하늘나라를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설교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라면 짧아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설교를 알게 해주셔서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듣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은총 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